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1

— 부산양협운동의 전말

차성환

양서협동조합운동이란 무엇인가?

양서협동조합(이하 양협으로 약칭)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대부분 독재권력의 탄압으로 소멸했던 민주화운동조직이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양협은 소비자 협동조합인데 특이한 것은 양서良書의 유통을 목적으로 만든 조합이라는 점이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인 시민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하는 경제조직이다. 따라서 양협은 일차적으로 경제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양협이 취급 대상으로 삼는 상품은 도서이며, 그 중에서도 양서라는 것이다. 여기서 양협은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도서의 보급을 통한 문화운동을 추구하고 있으며, 더구나 양질의 도서를 보급한다는 가치지향성을 갖는 문화운동체의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양협은 조합원 교육, 조합원 내부 소모임, 공개 강연 등을 통해 민주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대중 교육조직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협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격은 이 조직이 민주화운동가들이 합법적으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해 창안한 것이라는 점이다. 양협은 유신체제하에서 거미줄 같은 감시망과 독재 권력이 심어 준 공포감으로 인해 민주화운동과 단절돼 있던 대중과 민주화운동가들이 만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을 제공했다. 이 점이 양협이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민주화운동조직의 한 형태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양협은 유신체제 말기인 1978년 4월 부산에서 최초로 결성되었고, 이후 여러 도시에 전파되었는데 대부분 부마항쟁과 5·18항쟁을 거치면서 해산되었고 가장 오래 존속한 서울 양협도 1982년 3월경 해산하였다. 유신체제 말기와 5공 정권 초기 사이의 짧은 기간에만 존속했던 양협은 그동안 민주화운동사의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더구나, 관련 자료도 당국의 탄압과 당사자들의 피검 등으로 압수, 유실되어 많은 부분 당사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글은 먼저 부산양서협동조합운동을 태동에서 해산까지 살펴보고, 다음 글에서 다른 지역의 양협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의 청년 활동가들, 새로운 조직을 구상하다 - 부산 양협의 태동

양협의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한 김형기(현 경주 팔복교회 목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재학 중 서울 새문안교회 대학생부에 적을 두고 한국기독교 학생회총연맹(KSCF) 활동을 하던 중 1973년 11월 햇불 시위를 주도하고,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출옥한 후 1976년 7월 결혼과 함께 부산으로 와서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중부교회의 전도사로써 대학생부를 지도하던 김형기는 1977년 서울 서교동 소재 협동교육연구원에서 실험 지도자훈련을 받으면서 협동조합 형태의 운동에 착안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실험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코디 신부의 『안티고니

쉬 운동의 철학과 전략』이라는 책을 읽고 크게 공명했다. 안티고니쉬 운동은 캐나다 동부 연안의 노바스코시아 주의 안티고니쉬 지방에서 전개된 모범적 협동조합운동으로 널리 알려졌다.¹

김형기는 협동조합운동이 안티고니쉬 지방을 변화시켰듯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로서 협동조합에 주목했는데 협동조합은 “공개적, 합법적이며, 도덕적이고 온건”²한 조직체로서 시민운동과 문화운동을 담을 수 있는 적합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그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부산의 중부교회를 근거로 활동하던 최준영, 김희옥 등 기독교 청년운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듬어지고 구체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운동과 책을 매개로 한 양서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 논의 과정을 김희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김형기)는 나에게 협동조합에 관한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캐나다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노바스코시아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경험을 쓴 『안티고니쉬 운동의 철학과 전략』이라는 책을 주면서 읽어 보기를 권했다. 그 책을 읽고 그와 의기가 투합되었다. 즉 이 형태로 엘리트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소비자 협동조합 형태로 하되, 그 소비의 매개는 책으로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 형태의 모임이 현 기독교청년 위주의 폐쇄적 민주화 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설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직이 될 수 있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다.³

아직 대중과의 결합도가 낮은 민주화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양협이

1 안티고니쉬 운동은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에서 일어났던 생활개선운동으로서 농민, 어민, 노동자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인교육을 통하여 자조를 촉진하려 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물질적 향상과 함께 정신적 향상을 목표로 한 점이 주목된다.

2 김형기 서면 인터뷰, 2003. 7.

3 김희옥 서면 인터뷰, 2003. 7.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 이들 청년 그룹은 1977년 9월 중부교회 친교실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발기위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발기준비위원장은 김희욱이 맡았는데, 그는 부산의 대표적 교회인 영락교회 청년회장으로 부산여자전문대학에 출강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부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당국의 감시 대상이 아니었고, 교세가 강한 영락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준비위원장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부산 양협은 기장, 예장 등 기독교단에 소속된 이들 기독교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명망가 그룹과 서울지역 유학생 그룹, 그리고 중부교회 청년회 그룹, 부산지역 대학생과 청년 그룹 등이 결합했다.

양협의 주도 세력은 '양협이 반체제 조직이 아니고, 건전하고 온건한 시민들의 사회개혁, 생활향상 운동으로 출발하기 위해서'⁴ 당국이 감시하는 드러난 민주인사들은 가급적 배제하고자 했다.⁵ 다시 말하면 양협의 추진 주체들은 양협이 정치적 색채를 띠는 것을 피하고 온건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게끔 노력하였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양협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창립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당시 부산일보는 "항도 부산에 문화운동의 바람이 분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양협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새롭고 바람직한 시민문화운동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1977년 10월에 가칭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의 조직을 결의하고 발기인회를 구성했고, 1977년 10월 12일부터 1978년 2월 4일까지 매주 한 번씩 모여 양협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중부교회 친교실에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협동조합의 원리, 협동조합의 역사, 자본주의의 경제적 본질과 협동조합, 안티고니쉬 운동,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개발, 협동조합의 효과적 운영방안, 협동조합정신과 신

4 앞의 김형기 인터뷰.

5 그래서 민주화운동으로 수형한 사람 등은 공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했다.

학적 정신 등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실무적 준비를 병행해 나갔다.

1977년 11월 16일에는 양협을 정식으로 발기했는데 발기위원은 박현삼 등 20명이었다. 이후 홍보활동과 조직활동을 계속하면서 12월에는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김동수 박사, 김광일 변호사, 이흥록 변호사, 이길웅 선생 등 명망 있는 인사 15명을 발기위원으로 위촉했다.⁶

부산 양협의 이사장으로는 이흥록 변호사를 내정했는데 그는 양심적 법조인이자 가톨릭 신자로서 양협 운동을 열성적으로 지원했다. 부산 양협의 추진 주체들은 조합원의 구성에서 노·장·청 세대결합의 원칙을 세워, 명망인사, 종교인, 사업가, 교사, 대학생 등 각 계층을 고루 포함하고 최소한 1/3은 여성이 가입하도록 노력했다.

1978년 2월에 들어서는 54명이 모여 조합원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2월 22일부터는 부산 YMCA 회관 5층에서 임시 사무실을 열어 조합원의 출자를 받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양협이 창립되다 - 부산 양협의 탄생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78년 4월 5일 부산 YMCA 예식장에서 '부산



양협 창립 직후 마련한 사무실과 지역 서점인 협동서점의 모습.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안의 작은 건물을 세내어 2층은 사무실로, 1층은 서점으로 사용하였다.

6 김동수 박사는 의사로서 부산 YMCA 이사 등을 지냈으며, 김광일, 이흥록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분들이었고, 이길웅 씨는 제약회사의 소장이었다.

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⁷ 창립총회에서 2년 임기의 이사 4명과 1년 임기의 이사 5명, 감사 3명을 선출했으며,⁸ 이어 열린 1차 이사회에서 조합장에 이홍록, 부조합장에 박현삼, 서기 이사에 정영운, 교육 이사에 김형기, 홍보 이사에 신선명, 도서선정 이사에 정동진, 전무에 김희욱, 간사에 김점란을 선출했다.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의 수는 107명이었다. 그리고 보수동 책방골목의 4평짜리 작은 2층 건물을 빌려 4월 11일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4월 22일 건물 1층에 직영서점인 협동서점을 개설했다.

창립 총회에서 결의한 정관에 의하면 부산 양협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조합은 양서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보급하고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통해 부산 지방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며, 조합원 상호간의 협동과 신뢰에 기초한 민주적 경영방식을 익히고 나아가 경제적 민주주의와 협동주의에 입각한 참다운 자주, 자립적 경제 질서의 전 사회적 확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⁹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 양협은 두 가지 사업을 설정하는데 하나는 양서를 구입, 판매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원칙과 방법은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양협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문호 개방의 원칙),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권리를 가지며(경제적 민주주의의 원칙), 일체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키고(중립의 원칙), 민주적 관리를 통하여 민주적 관리능력을 배양하

7 부산 양협의 소식지에는 창립일자가 1978년 4월 2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김희욱의 증언에 의하면 4월 5일이 정확한 일자라고 한다. 앞의 김희욱 인터뷰.

8 2년제 이사는 김동규, 김형기, 윤정규, 이홍록, 1년제 이사는 신선명, 박현삼, 김명준, 정동진, 정영운, 감사는 박노춘, 박상도, 임동규 등이 선출되었다.

9 부산양서이용협동조합,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정관』, 1978. 4. 5.

며(민주적 운영 관리의 원칙), 조합원의 재교육을 통하여 조합의 발전을 이룩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교육의 원칙). 그 밖에도 품질 본위의 원칙, 시가 판매의 원칙, 구매고 비례 배당의 원칙, 자본의 이자 제한의 원칙, 현금 거래의 원칙 등이 있었다.

부산 양협은 조합원 가입에 대해 문호개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기에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었고, 창립 이후에는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었다.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매달 1천 원 이상 출자를 해야 했는데 1인이 출자 총액의 1/10 이상 출자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위한 다액 출자가 있어도 그 비율을 넘지 않도록 고심했다.

부산 양협의 조합원이 되면 매달 책 2권 이상을 구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 조합원이 소장한 책 가운데 양서 2권 이상을 조합에 기증하게 하여 이 책을 정가의 1/10 또는 1/5의 대본료를 받고 1주일간 대여하기도 했다.

또 조합원은 조합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 양협은 창립 후 바로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는데 1978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신규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운동의 원리, 역사 그리고 정관 해설 및 운영 방법 그리고 대화 및 친교를 내용으로 교육했다.¹⁰

‘양서협동조합론’이라는 교육 자료를 보면 당시 양협운동의 주체들이 부산 양협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양서협동조합이란?

1. 좋은 책을 벗삼아 살고자 하는 시민들이 신뢰와 협동의 인간관계를 기초로 모여서 좋은 책을 판매·보급·출판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협동조합이다.
2. 좋은 책을 매개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지

10 부산양서이용협동조합, 「제3회 조합원 가입 교육 안내문」, 1978.

역사회를 개발하고 시민문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면서 문자 공해를 추방하고 새로운 지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문화운동체이다.

3. 끊임없는 성인교육·사회교육을 통하여 타성과 무기력·무관심을 타파하고 작은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잘못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생산조직을 만들어 가는 구조개혁운동체이다.

4. 물질·기능·권력의 위력이 인간성을 앗아가는 비정한 오늘의 세태에 도전하여 신뢰와 협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인간이 역사와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해 가려는 인간회복운동체이다.¹¹

부산 양협은 창립 때부터 '양서조합소식'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했는데 창간호에 실린 '협동조합운동의 시대적 의의'라는 글을 통해 양협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은 "현대는 민주주의 시대다"라고 전제한 후 "모든 권력은 국민 다수로부터 나오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류의 이상이지만 현실은 지식, 재산, 권력의 양극화로 만인이 소외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식민 잔재의 미청산과 분단, 국민경제의 대외의존, 반민주 의식의 잔존 등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민주적 생활은 없다"고 평가하고, "협동조합운동은 민주주의를 역사와 사회 속에 굳건히 정착시켜 가는 운동이다. 그것은 신뢰와 협동의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여 현실에 주어진 인적·물질·문화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민주주의의 내실을 충족시켜가는 운동"으로서 "진정한 자주·자립의 기반을 다져 가는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²

11 부산양서이용협동조합, 「양서협동조합론」, 조합원교육자료, 1978.

12 《양서조합소식》 창간호, 「협동조합운동의 시대적 의의」, 1978. 4.

양협으로 사람이 모여들다 - 부산 양협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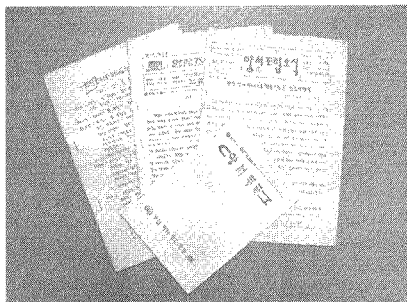
부산 양협은 출범과 함께 조합원이 매달 크게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져 갔다. 1978년 4월 창립 당시 107명이던 조합원이 1978년 5월 5일 현재로 152명으로 늘어났고 출자금은 1,543,000원, 도서판매액 543,255원을 기록하고 있다. 1978년 말에 가면 조합원 수는 298명으로 거의 3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부산 양협은 세미나와 강연회, 학습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했다. 1978년 6월 2일부터는 조합원이 같이 참여하는 금요세미나를 실시하여 매주 지속했다. 1978년 9월 26일에는 독서 주간을 맞이하여 '한국인의 지적 풍토와 독서 경향'을 주제로 문학평론가 임현영씨의 초청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1978년 하반기부터는 조합원 소모임으로 도시문제 연구모임, 농촌문제 연구모임, 시사문제 연구모임 등 사회문제 학습모임과 사진반, 연극반, 꽃꽂이반 등 취미 모임도 생겨났다. 다음의 증언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78년 말 하반기 부산으로 나온 나는 부산운동권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먼저 부산대학생 2학년을 중심으로 한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 그리고 부산대학 내 운동권 기반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양서 조합내의 신선명, 오홍숙, 박철수, 구성애 등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3~4개의 사회과학 학습모임을 조직하여 농촌문제와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부산운동권 재생산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¹³

조합원이 늘어나고 사업에 자신감을 얻은 추진 주체들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게 된다. 위 리플렛에 의하면 당시 부산 양협이 실행 또는

13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998, 330쪽에서 재인용.



부산 양협에서 발간한 소식지 《양서조합소식》 1, 2호의 성관 그리고 부산 양협에서 1979년 6월에 제작한 양서목록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도서 선정, (조합원)교육, 홍보, 지역사회개발, 야학, 봉사, 작은 모임, 어학 연구모임, 지역사회개발 연구모임, 전문학술 연구모임, 종교 연구모임, 예술 연구모임, 축제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추진할 사업 목표로서 1978년에 부산양서협동조합 직영의 협동서점(양서 소개), 1979년에는 직영 협동출판사(양서 출판), 1985년에는 직영 협동도서관(양서 읽기), 1990년에는 직영 협동연구소(어학연구소, 지역사회개발연구소, 전문학술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2000년에는 직영 협동대학의 설립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협동서점 외에는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양협이 강제 해산됨으로써 계획에 그치고 말았지만, 계획 자체가 장래의 전망을 공유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신뢰와 결속을 다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부산 양협의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어느 돌맹이의 외침(유동우), 전환시대의 논리(이영희), 저 낮은 곳을 향하여(한완상), 뜻으로 본 한국역사(함석헌), 백범 일지(김구), 노동의 새벽(광민사), 미국노동운동 비사(백범사상연구소), 소외란 무엇인가(에리히 프롬), 피억압자를 위한 교육학(파울로 프레이리), 씨알의 소리(월간지), 대화(월간지)¹⁴

14 박철수 서면 인터뷰, 2003. 8.

해가 바뀌어 1979년 2월 25일에는 제1차 정기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협동서점을 중구 대청동 1가 38번지로 확장 이전하게 된다.

1979년에도 조합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9년 7월 31일 현재의 조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조합원 수는 461명, 출자금 4,515,000원, 도서 판매액 10,586,779원이었으며, 1979년 9월 30일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조합원 수 501명, 출자금 5,002,000원, 도서 판매액 12,766,289원이었다.¹⁵

운영 상황도 1979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301,894원의 매출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 양협은 매우 짧은 기간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전무였던 김희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 양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소문이 인맥으로 적지 않게 퍼졌고, 당시 암울했던 시대에 그래도 의미가 있는 대화가 오가는 시대적인 사랑방 역할을 했으며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책과 관련된 독서주간을 맞이해서는 (...) 강연회도 열었다. 그리고 기타 시대적 이슈나 성격에 맞는 행사를 하면서 (...)의미를 알렸다. 이 같은 행사들은 매스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또한 양서협동조합 안내 팸플릿도 만들어 홍보를 하였고, 조합 회지도 만들어 조합의 사업계획, 조합원들의 동향, 수필, 논단, 역사, 뉴스 등을 알렸다. 조합 자체에서 구성한 양서선정위원회에서 양서 100권을 선정해 당시 가장 고급 옵션 팸플릿을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책방에 들리면 매스컴에서는 알 수 없는 '카더라 통신' 등 여러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암담하고 답답한 시절에 이렇게 서점, 도서관, 사랑방, 언더뉴스, 취미모임, 스터디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였기에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았던가 생각된다.(김희옥 인터뷰)

15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의하면 1979년 11월 해산되기까지 56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김희옥의 증언에 의하면 비상계엄하에서 강제로 폐쇄당할 때(1979년 11월 중순)는 600명을 넘어 700명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당시 양협의 실무자 역할을 맡고 있던 박철수는 양협의 빠른 성장 이 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 교회의 전도 방식과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조합원 신입 교육을 받고 취지에 흔쾌히 찬동하고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들을 데려와 소개해 주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과 사귄 수 있다는 매력, 뭐 이런 것들이 주원인이 되겠지요. 또 전혀 위법이지 않다는 점도 있었고. 나중에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도한 문부식, 김은숙도 내가 소개해서 협동서점의 멤버가 되었고요. 당시 서울 등지에서 양협을 통해 비밀스럽게 배포되곤 했던 유인물도 많이 나눠 보기도 했고요.(박철수 인터뷰)

유신 정권, 부산 양협을 탄압하기 시작하다 - 부산 양협의 수난

부산 양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찰은 처음과 달리 양협을 주목, 감시 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중부교회와 협동서점이 보수동에 인접해 있기도 했지만 중부서 황 형사는 양협 담당 감시원이었지요. 부산대 학생이었던 서연자 · 김00는 부모님들한테 양협 출입을 하면 제적시킨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는 알려진 얘기구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직장 인, 교사 등이 협박을 받은 걸로 압니다.(박철수 인터뷰)

처음에는 관망만 하던 당국이 시간이 가면서 감시망을 강화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형사들이 수배자 명단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출입한다는데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양협 회원들을 오히려 자극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과격하게 만드는 면이 있었다. 내 생각에는 당국이 오히려 그냥 관망만 했더라면 양협은 협동운동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반독재 투쟁과는 상당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해 갔을 것이다.

그러나 군부과소정권은 모든 문제를 하향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본질적으로 상황

식일 수밖에 없는 양협운동과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김형기 인터뷰)

부산 양협 내부에서는 활동 방향에 대한 견해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 계기는 양협에 대학생 학습모임을 만드는 문제였다. 양협을 학생운동과 연관하여 적극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양협 내에 대학생들의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사회과학 서적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학생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반면에 양협을 통해 의식개혁과 점진적 민주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시도에 반대했다.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자.

당시 당국에서 급서로 정한 책들을 양협을 통해서 유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협이 반독재 투쟁 단계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당국이 명단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조합원에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들도 이를 이해하고 대체로 잘 협조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서점에 자주 들르고, 일부 모임에도 참석했으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는 내가 당국의 가장 감시받는 인물이었기에 나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었다. 모임의 자세한 일정이나 참석 인물들의 면면을 모르는 것이 보안상 오히려 나았기 때문이다. 형사들이 와서 이따금씩 내게 물었지만 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잘 모른다' 라고 답했다. 서로들 조심하여 문제되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임이 돌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고, 잘 되도록 조용히 지원도 했었다.(김형기 인터뷰)

그러나 이런 견해차는 대학생들의 스터디 그룹 활동을 외부에서 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정리되었다.

1979년 6월 23일에는 농촌 현장 활동을 위한 '강변의 축제'를 개최했고 7

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농촌 현장 활동 봉사단을 경남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울림부락¹⁶에 파견했다.

양서조합에서는 79년 7월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활동을 위한 일일차집을 열어 상당한 기금을 마련했다. 농촌활동의 주체는 양서조합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 참여자는 당연히 부산대학생 모임과 양서조합 내외의 사회과학 학습모임 회원들이었다. 당시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여름 농촌활동은 이름 그대로 농촌 봉사활동으로 농촌일손돕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활동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달라는 양서조합 김희옥 전무의 부탁에 따라 내가 쓴 「농촌문제와 농촌활동」(원고지 100매 정도)이란 소책자를 양서조합 이름으로 3천 부를 제작하여 일일차집 행사장에서, 나머지는 양서조합에서 일반 조합원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시경에서는 이 책자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책자를 압수하고 김희옥 전무와 나를 연행하여 조사하기도 했다.¹⁷

이처럼 부산 양협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국의 감시와 압력은 더해 갔다. 그 가운데서도 부산 양협은 꾸준히 조합원을 확대해 갔다. 자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김희옥의 증언에 의하면 1979년 11월경의 회원 수는 최소한 600명 이상이었던 것 같다. 당시 회원 구성을 보면 대학생, 일반 시민, 가정주부,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까지 회원으로 가입했다. 전체의 거의 50%는 대학생 층이었고, 일반시민들은 주로 회사원으로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았다. 직업으로는 판사, 변호사, 목사 등이 있었고 그 밖에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5%, 여성이 25% 정도 되었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젊은 층이 주류(80% 이상)를 이루었다.¹⁸

16 양협이 농촌활동을 간 울림부락은 울산에서 양협을 조직한 진영우의 고향 마을이었다.

17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송세경 인터뷰 내용, 331쪽.

9월 25일에는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제2차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는데 소설가 조세희씨가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산 양협은 창립 이후 질적, 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당국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도 부산 지역의 민주적 양심적 지식인, 청년 학생들을 결집하여 오다가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산 양협, 부마항쟁의 불길에 휩싸이다 - 부산 양협의 시련

부산 양협이 부산대 학생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는 했으나, 부산대 시위가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발전하리라고는 학생들이나 양협 관계자들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김형기의 증언을 들어보자.

1979년 10월에 운동권으로부터 16일에는 소위 유신 7주년 기념잔치를 전국적으로 벌인다는 정보가 들어왔었다. 전국의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전국 각 거점 도시들에서 일시에 쫓겨나자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부산 민주화 운동의 수준과 상황을 잘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범시민적 쫓겨나는 어렵다고 보았고, 이를 기대하지도 않았었다.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 내에서 시위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 16일 오전에는 혹시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여 협동서점에 있었는데, 한 조합원이 와서 부산대학에서 데모가 터지고 학생들이 닫힌 대문을 넘어서 동래장으로 열을 지어 달리면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 주었다. 나는 속으로 기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여 중부교회 스테디 그룹 학생들과 양협 조합원 학생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걸며 상황 파악에 애썼다. 정오가 지나면서 시위대가 시내 쪽으로 몰려오고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 있다고 했다. 나는 대청동, 광복동, 남포동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시민들의 정황과 표현을 살폈는데 고층건물의 창문마다에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함성이 울려나오는 것 같은 환청을 들었다.

그 날의 감각이 얼마나 컸었는지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나자 과연 멀리서 시위대의 진짜 함성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속히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 보았다. 스크럽을 짠 시위대가 길 복판을 달리며 외치고 있었다. 시위대의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많아졌다. 저녁이 될 때까지 열기가 더해 가는 것이었다. 시내 곳곳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그곳 상황을 파악해 보니 주요 거리마다 시위대가 치고 빠지는 식으로 외치며 다니는 바람에 진압전경대가 무력해져 버렸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날 밤 늦게까지 남포동, 광복동 거리는 시위대와 이를 지원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전경들은 아예 한 곳에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시내에 나오니 또 전날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TV 보도에 부산 시위가 전해지고, 부산 일원에 계엄령 발동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 19일 밤에도 시내를 돌고는 늦게 귀가하면서 부산 역 앞을 지나는데 군대가 도열해 있었다. 서 있는 장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오늘 밤 0시를 기해서 계엄령이 발동되니 속히 귀가하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서울 기독교교회협의회(NCC)에서 손학규 씨가 현장답사차 급히 부산에 내려왔다고 연락이 왔다. 최성묵 목사님과 박상도 씨, 그리고 나는 자주 만나던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가니 잘 아는 형사들이 그곳에 여느 때보다 많이 와 있었다. 우리가 모인 것을 보고는 잠시 경찰서까지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우리는 별 일이 아닐 것으로 알고 동행했다.

우리는 경찰서에 잠시 들렀다가 군경합동수사 본부가 있던 삼일공사로 이첩되어 심문을 받았다. 나를 심문한 자는 다짜고짜 간첩 취급을 하면서 고유번호를 대리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금 후에는 평소 아는 형사가 들어오더니 가까이 와서 슬쩍 '김 선생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고 귀뜸을 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당국이 나를 부마사태 총책으로 몰아가려나 보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었다. (...) 저들은 희생양을 찾고 있었고, 민청학련 전과자이며,

부산에서는 외지인인 나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정한 것이었다. (...) 저들은 오히려 내가 정보당국이 낚새를 차리고 추궁하리라 염려했던 중부교회 스테디 그룹 멤버들, 낙동강 너머에 마련한 수배자 도피처, 협동서점을 통하여 보급된 금서 목록과 그 관계자들, 부산에 잠입해 들어온 수배자들과 만난 일 등에 대한 추궁 따위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오직 양협을 붙은 단체로 몰고, 조합원 번호를 간첩 고유번호라고 우기면서 때를 쓰는 것이었다. 조합원의 이름과 번호와 주소는 양협의 조합 장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무슨 신중 정보라도 캐내는 듯이 조합원 번호와 이름을 대라며 괴롭혔다.(김형기 인터뷰)

이 증언대로 부마항쟁을 수사한 군경합동수사단은 양서조합을 항쟁 배후 조종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들은 부마항쟁의 배후조직의 계보를 도표로 그렸는데 총책은 최성묵, 자금책은 김광일, 총책 밑에 두 사람의 중간 보스가 있었는데 김형기는 학원 담당책, 박상도는 교회 및 노동담당책이었다. 김형기 밑에는 이상록·고호석 계열, 박상도 밑에는 조태원·김영일이 있었다. 그러나 조직 계보의 그림은 그럴 듯했지만 이 조직이 부마항쟁에 개입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¹⁹

최성묵 목사와 김광일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 최목사는 딱딱한 의자에서 5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술서를 써야 했다.²⁰ 당시의 상황을 최목사는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 어느날 새벽에 대구에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아는 사람이 전화를 했었는데 직접 말은 못하고 은어로 물어왔어요. 처음에 '사과가 많이 떨어지죠?' 했어요. 저는 잠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태풍이 많이 불지 않았어요?' 라고 또 묻는 것입니

19 조갑제, 『유고! 2』, 한길사, 1987, 108쪽.

20 조갑제, 위의 책, 107쪽.

다. 그래 저는 몇 명이 죽었는가를 묻는가 싶어서 '태풍이 많이 불긴 했는데 사과가 몇 개 떨어졌는지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21일 제가 연행되어 갔는데 그때 그 전화내용이 간첩첩선으로 꾸며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 중부서에서 눈을 감기고는 옛 진구형 건물인 보안사로 데려갔어요. 저는 큰 방에 혼자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신문하는 소리 등이 들리고 시골벽적했어요. 서울 정보부에서 왔다는 형사가 한 명 들어와서는 007가방을 열고는 차트를 꺼내 김일성을 최고 위에 다 그려놓고 엠네스티, KNCC 등 단체 등을 그 밑에 그리고는 부산 최 목사에 지령해서 데모를 조직적으로 전개했다는 등의 말을 했어요. 무슨 무슨 책, 누구는 무슨 책하며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서 말합니다. 해서 '무슨 근거도 없이 김일성 지령이 어떻게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라고 하자, 그가 '전화로 사과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일입니다만, 그들이 판단하기로 국제시장에서 있었던 숨바꼭질식의 시위가 너무나 조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네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만 작품은 미리 그려 놓고 끼워 맞춰 나가는 것이었어요. 차트도 몇 개씩이나 갖고 와서 잘 안 되면 다른 것, 다음날 다른 것 그런 식이니까요. 25일은 간첩혐의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27일에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에 조금 열려진 커튼 사이로 태극기가 반기로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11시경에 내보내더군요. 학생들은 내가 들은 소리로만도 무수히 고문당했어요.²¹

결국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피살됨으로써 양협을 부마항쟁의 배후 조직으로 조작하려는 기도는 무산되고 관련자들은 10월 말경 방면되었다.

신군부, 부산 양협을 강제 해산하다 - 부산 양협의 종말

그러나 새 권력집단으로 등장한 신군부는 부산 양협을 그냥 두지 않았다.

21 부마민주항쟁십주년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기념자료집』, 1989, 153~154쪽.

22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27~328쪽.

10·26 이후 계엄사령부는 부산 양협 이사장 이흥록 변호사에게 전화로 양협의 해산을 강력히 종용했다. 그러나 이사장 독단으로 해산할 수 없고,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계엄사령부는 총회 개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협박을 동반한 압력을 집요하게 넣었다. 그러나, 편법으로라도 최소한 이사회를 열어서 토론하겠다 하여 이사장을 제외한 7, 8명 이사들이 4~5 시간을 토론한 끝에 결국 해산하게 되었다.²² 당시 계엄사의 해산 압력에 대한 거부론과 순응론이 있었으나 자진 해산을 않는다면 강제 폐쇄하겠다는 위협으로 결국 자진 해산하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김희욱의 증언을 들어보자.

부마항쟁으로 부산 마산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정보과 형사들이 자주 들락거렸다. 계엄당국은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기 위해 국세청의 직원까지 보내 조합 장부를 감사하고 (...) 비리나 부정이 없는지를 조사까지 했다. 이흥록 이사장은 비상계엄본부에 호출된 것으로 안다.

그 며칠 후 갑자기 비상 긴급 이사회가 조합 책방에서 열렸다. 그 날은 비상계엄사령부에서 파견된 직원 1명이 배석하는 가운데 이사회가 진행되었다. 안건은 자진 책방 폐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자 배석한 사람이 신분상 안 좋다는 협박 공갈을 하는 가운데 자진 폐쇄하는 쪽으로 결의를 하게 되었다.(김희욱 인터뷰)

1978년 4월에 창립하여 1979년 11월 19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존속했던 부산 양협은 신군부의 강압으로 마침내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